월요광장

이승만의 기념관을 세우자고?

박 석 무
다산학자·우석대 석좌교수

기가 막히고 숨이 가쁘고 가슴이 울렁거린다. 아니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천하의 독재자를 다시 소환해 역사를 후퇴시키고 민족정기까지 말살하려고 하는 것인가. 1960년 4월 19일, 고등학생으로 '부정선거 다시 하고, 대통령은 하야하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광주 금남로를 누비던 그날이 생각되어 가슴이 먹먹해진다. 찬란한 봄날에 저 맑고 푸른 하늘도 두렵지 않은가. 모두가 잊고 모른다고 해도 하늘만은 똑똑히 기억하며 '그래서는 안된다'고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그런 못된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승만은 1925년 상해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용납할 수 없는 잘못 때문에 끝내는 탄핵을 당해 대통령 직에서 파면되고 말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탄핵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인물이었다. 비운의 분단된 나라에 반쪽의 단독정부를 세워 또 초대 대통령에 올랐으나, '사바사바'로 상징되는 부패공화국으로 추락시키고 끝내는 영구집권을 위해 온갖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혹독한 독재체제를 유지하다, 성난 민심의 4·19혁명으로 두 번째 대통령직에서 쫓겨나는 재범의 독재자였다. 자유당 부패 정권 12년, 이승만이 저지른 실정은 필설로는 다 말하고 기록할 수 없이 생생하게 우리의 기억에 살아 있다. 제주 4·3과 여수·순천 사건 등 얼마나 많은 양민을 학살하였고, 6·25 당시 서울을 사수한다고 시민들만 남겨두고 몰래 자신은 탈출해버린 국민에 대한 배신은 또 얼마나 컸었는가.

그것뿐이랴, 매국노들이자 민족의 반역자들인 친일파의 청산을 위해 국회에서 제정한 반민특위를 강제로 해체하여 매국·친일파들이 모두 살아나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사회의 주류로 행세하는 반역사·반민족의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 사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국가와 민족의 가장 큰 죄인으로 두 번이나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쫓겨난 사람을 왜 우리 국민이 기리고 기념해야 한다고 기념관을 세운단 말인가. 그것도 서울의 한복판, 나라의 심장에 해당되는 곳에 세워야 한다는 것인가. 조국의 해방과 광복을 위해 몸을 바치며 싸웠던 애국선열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여길 것인가. 몸서리치는 친일파, 그들이 반공주의자로 변신하면서, 그들의 세상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이승만은 바로 이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인물이다. 임시정부에서 탄핵당한 죄인, 4·19 민주이념에 어긋나 쫓겨난 독재자인데, 어떻게 민족의 영웅으로 소환하여 국민적 숭앙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참다운 독립운동가인 홍범도 장군의 동상은 육사에서 추방한다면서, 민족의 죄인이자 독재자인 이승만은 영웅으로 소환된다니,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는 어떤 정부인가. 임정의 주인공들이야 세상에 계시는 분이 없지만, 4·19의 공로자나 부상자들은 아직도 생존해 있는 분이 많다. 총탄에 쓰러져간 희생자들의 영혼은 아직도 우리 곁에 있다. 그들의 눈이 무섭지 않고 그들의 분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에서 물러가라고 외쳤던 나도 아직 살아 있다.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 있는데, 이승만을 다시 살려서 보수 극우파들의 힘을 실어주자는데 이런 정부를 우리 모두가 보고만 있을 것인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헌법정신에 어긋난 사람이 민족의 영웅은 될 수 없다. 인간에게는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이승만이라고 공이 없겠는가. 그러나 이승만은 공보다는 과가 너무 크고 많다. 국민과 민족에 의해서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기림과 기념의 인물이 되겠는가. 4·19 민주이념으로 고한다. 기념관 건립, 당장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

수필의 향기

한 은퇴자의 글쓰기와 기록의 쓸모

김 향 남
수필가

어떤 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다. 워낙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먹고 사느라고 엄두도 못 내다가 은퇴 후에야 비로소 꿈을 이루었노라고 했다. 벌써 세 번째 책이라니, 그 부지런한 사랑이 감탄을 넘어 존경스럽기까지 했다. 그는 하루도 쓰지 않는 날이 없다고 했다. '둔필승총(鈍筆勝聰)', 둔한 붓이 총명한 머리보다 낫다는 말을 스승 삼아 날마다 습관처럼 쓴다고 했다. 무엇이든 적어두지 않으면 잊게 마련이니, '적자생존(적는 자가 살아남는다)'의 원리를 누구보다 깊이 깨우친 것이리라.

그의 이야기는 옹기종기 모여앉은 형제들 같다. 크고 작은 섬들이 모여 이룬 다도해 같기도 하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모여서 두툼한 한 권의 역사가 되었다. 내용물은 수수하고 담박하다. 거칠고 투박하게도 느껴진다. 형식에 얽매지도 않고 기교도 없다. 언어적 수사에 골몰하거나 구태여 의미화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가공품이라기보다 자연산에 가깝다. 화려하고 장식적인 것보다 소박하고 솔직한 것을 선호하는 듯하다. 깔끔하게 정돈되었다기보다 덜렁덜렁 치워놓은 편안한 거실 같다. 자랑도 자만도 없다. 잘잘못을 가리는 냉철한 잣대보다 긍정하고 화합하는 쪽이다. 천천히 조심조심 걷는다기보다 성큼성큼 활보하기를 즐긴다고 할까.

사실 나는 그분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책 한 권을 읽고 나니 오랜 친구라도 된 듯 친밀감이 느껴진다. 그의 가족, 일상, 취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뭔지 다 알 듯하다. 그가 얼마나 손자들을 사랑하는지, 아내에 대한 속마음은 어떠한지, 친구들 여행 바둑 붓글씨 수영,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글을 쓰는가에 대해서도 웬만큼은 알 것 같다. 일대일의 긴 대화를 나눈 듯, 읽기 전과 읽기 후가 이렇게 다르다니….

수필이라는 장르는 확실히 존재의 고유함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양식임이 분명하다. 한 존재의 일상과 그 세계를 정치하게 다루는 것이 수필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담기는 건 그 자신의 고유한 삶이 아니겠나. 태어나고 죽는 것은 삶의 벗어날 수 없는 형식이며 각각의 삶 또한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한 권의 수필집 속에 들어 있는 존재의 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만의 고유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 같고 다름을 발견하는 일은 의외의 기쁨을 준다. 낯설고 신선해서 좋고, 비슷해서 또 달라서 좋다.

한 권의 수필집은 필부필부의 삶도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높은 지위에 올라 권력을 휘두르고 큰 빗돌에 이름을 새겨야만 그 이름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해도, 작고 보잘것없어도 모두의 삶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일깨워 준다. 힘센 자만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적는 자가 살아남고 꾸준해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일러 주기도 한다.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던가. 그는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기록한다. 역사는 나라와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부필부 장삼이사들에게도 똑같이 있으므로. 자신에게도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내력과 제 삶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을 들려줄 후손이 있으므로. 그러나 기록이 아니면 그 어느 역사도 알 길이 없다. 하찮다 여길 개인의 역사도, 거대한 국가의 역사도 모두 기록에 의해 남는다. 기억은 곧잘 사라지거나 왜곡될 수 있지만, 기록은 기억을 도울 뿐 아니라 더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하게 해준다.

할아버지로서 그는 훗날의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글을 쓴다. 아직 어린 독자들이지만 머지않아 가장 친애하는 독자가 되어줄 것을 믿는다. 그걸 생각하면 글쓰기만큼 설레는 일도 없다. 그러니까 그는 연결하는 사람이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지금 사람과 다음 사람, 나와 너를 연결하는 가장 분명한 도구는 기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이 기록물을 통해서도 그는 먼 후대에까지 연결될 수 있으며, 자신이 경험한 바를 다시 돌아볼 수 있고, 더불어 나누고 소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기록하는 동안 그는, 때때로 닥치는 혼돈과 불안과 무의미를 넘어서기도 할 것이며, 흐트러진 생각들을 가지런히 꿰어내기도 할 것이다.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원하는 삶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인생을 두 번 사는 놀라운 경험도 해보게 될 것이며, 세상을 건너가는 지혜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두가 '씀'으로써 일어나는, 기록의 쓸모가 아니겠는가.

기 고

마스크가 '벽'이 되는 의사소통

박 진 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슈퍼맨이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슈퍼히어로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마스크를 착용해서 일반인과 구별되는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스파이더맨의 경우, 그의 진짜 신원인 피터 파커는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특별한 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면 스파이더맨 슈트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한다. 마스크는 피터의 얼굴을 가려주는 구실을 한다. 어느 누구도 그가 피터 파커인줄 알아보지 못한다. 가족이나 친구들조차 그렇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마스크는 의사나 간호사, 호흡기를 보호해야 하는 공장 근로자, 조리사만이 쓰는 도구였다. 그런데 코로나 대유행을 겪는 3년여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았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적도 있다. 지금은 코로나 대유행이 지나갔다. 그런데도 마스크를 계속 쓰는 사람이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는 것이 마음 편해서 계속 그런다는 사람도 있다.

13년 전 종로의 어느 편의점 출입문에는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하면 강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종로2가 파출소가 관내 편의점에 강도 사건이 급증하면서 범죄예방 차원에서 내놓은 방법이었다. 마스크와 모자를 함께 착용하면 얼굴과 머리를 모두 가리게 되어 익명성이 더 커진다. 실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범죄자나 강도들이 이런 차림으로 표현되는 일이 많다. 공공장소에서 그런 차림을 한 사람을 실제로 보게 되면 주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게 된다. 비록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보호하기 위해 사용했더라도, 범행을 저지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를 하는 것은 소통을 하는데도 방해가 된다. 표정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을 하면, 사람의 표정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하기가 어려워진다. 상대도 그들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비록 목소리의 톤을 귀로 들을 수 있지만, 얼굴 표정이 감춰지는 것만으로도 커뮤니케이션은 크게 제약받는다. 그런 점 때문에, 어떤 이들은 일부러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의 말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오해하기도 한다.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A씨는 세 사람을 한 자리에서 만난 뒤 경험을 이야기해준 적이 있다. 세 사람 가운데 한명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나타났는데, 처음엔 그가 뭔가를 감추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했다. 그래서 큰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모임이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마스크를 벗지 않자 나중에는 불쾌감을 느꼈다고 했다. 알고 보니 감기에 걸려 행여나 주변에게 피해를 줄까봐 마스크를 단단히 쓰고 있었던 것이었지만, 사람들 사이에 거리감을 남기고 연결도 약해지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한다. 마스크를 쓰고 의사소통을 하다보면 자칫 이런 손실을 입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부득이 마스크를 착용하겠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면서도 감정을 전달하고자 할 때는 목소리나 단어 선택, 몸의 자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는 비언어적인 신호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손짓이나 눈동자 움직임, 자세도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 차렷 자세로 말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손동작이 상대에게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 또, 목소리의 강도나 억양을 잘 조절해서 상대에게 명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둘째, 적절한 언어 선택이 필수다. 서로가 오해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면서, 필요하면 질문도 적극적으로 하여 상대방이 말하는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좋겠다. 셋째, "제가 지금 마스크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 이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뜻을 전하는 것이 좋다. 중간에 살짝 마스크를 벗거나 잠시 한쪽 테두리를 내리면서 자신의 표정을 드러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그러면 상대도 이해를 하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여기게 된다.

상대방이 마스크를 써서 표정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말소리와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대방의 표정을 보면서 대화를 해도 오해가 생기는 게 현실이다. 말만으로 사태를 다 이해하고 뜻을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말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들을 때는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는 게 중요하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서로가 상대의 감정을 공감해줄 때 우리는 존중받고 있다고 느낀다.

社 說

전남 현안 '19조 대통령 약속' 임기내 실현하길

지난 14일 전남도청에 열린 민생토론회는 전남의 현안 사업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장이었다. 전남도 입장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안 사업 지원을 약속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가 컸다.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이 지원을 약속한 사업은 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SOC 관련으로 사업비만 19조원에 달한다. 한국판 아우토반으로 불리는 영암~광주 초고속도로 건설(2조6000억원), 강진~완도 고속도로 건설(1조5965억원), 전라선 익산~여수 구간 고속화(3조357억원) 등이다. 한국판 아우토반 건설 사업은 올해 예산에 용역비가 반영됐고 전라선 구간 고속화사업은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한 상태로 일부 사업들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끈 전남권 국립 의대 신설도 윤 대통령이 "전남도가 단일안을 제출하면~" 이란 전제가 붙었지만 자신의 임기내 지원을 약속했다.

민생토론회가 4·10 총선용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전남도의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무리 '립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공언을 한 만큼 약속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성과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꾸준하고 유연한 대 정부 설득이 이뤄낸 것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 꾸준히 기반시설과 기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고 민생토론회에 이 안건을 전략적으로 대거 포함시켜 성과를 이뤄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대통령 임기내 최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일이다. 관건은 국비 확보인데 김 지사는 당장 올해부터 정부 부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긴축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라 국비 확보를 두고 어느때보다 자치단체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지사를 비롯해 전남도 공직자들은 물론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모두 힘을 모아 전남 현안 사업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악성 민원' 시달리는 공무원…처벌 강화해야

경기도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지역 공무원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포트홀 담당이었던 해당 공무원은 보수 공사와 관련된 차량 지체로 항의성 민원에 시달렸으며 인터넷에 실명 등이 공개돼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광주지역 공무원들 역시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원인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 신체적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12일 술에 취한 채 한 센터를 찾아온 60대 남자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난동을 부리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지난해 말에는 1년간 지속적으로 여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성희롱을 일삼은 민원인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교통지도과, 청소행정과, 복지과 등 환경개선, 단속과 벌금조치가 이뤄지는 부서는 특히 악성 민원에 쉽게 노출돼 있어 고통의 강도가 심하다. 다짜고짜 욕설을 퍼붓고 국민신문고 등을 악용해 사소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일도 다반사다.

2021년 '공무원 보호조치 의무 법령' 등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처벌 정도가 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이다. 악성 민원은 경범죄로 분류돼 벌금이 5만원에 그치기 때문에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난동이 잦은 부서에는 청원경찰이 배치돼 있지만 사건 현장에서 청원경찰이 동원돼도 대부분 귀가 조치에 그치고 만다.

신체적 위협을 느끼고 벨소리만 울려도 긴장하고 스트레스가 쌓인다는 공무원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악성 민원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無 等 鼓

야구의 계절

국가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 선호하는 스포츠도 다르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스포츠는 미식축구다. 특히 슈퍼볼은 내셔널 풋볼 콘퍼런스(NFC)와 아메리칸 풋볼 콘퍼런스(AFC)의 결승팀이 승부를 가리는 가장 인기 있는 경기다. 쿠바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는 야구다. 19세기 말까지 스페인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쿠바는 독립운동 중에 미국 원조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미국 문화인 야구를 수용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배드민턴 강국이다.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이 모두 배드민턴에서 나온 것과 무관치 않다. 필리핀에서 최고 인기 종목은 농구인데 100여 년 전 미국 지배를 받던 시기 농구가 소개됐다. 1970년대 독재자 마르코스는 아시아에서 처음 프로 농구를 출범시키기도 했다.

우리나라 국기(國技) 즉, 대표 스포츠는 축구다. 그러나 인기 측면에서는 프로 야구가 프로 축구를 능가한다. 일제 강점기 축구는 민족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상징적인 종목이었고 이후 '스포츠 남북 대결' 국면에서는 국가 프로젝트에 비견됐다. 하지만 오늘날 야구가 축구보다 인기 스포츠로 부상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얼마 전 한양대 스포츠산업학과 이종성 교수가 펴낸 '야구의 나라'라는 책은 야구의 인기 요인을 흥미롭게 분석했다. 저자는 프로 야구가 프로 축구보다 인기가 높은 이유를 1970년대 고교 야구에서 찾는다. 전국의 고등학교가 야구대회에서 각축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야구와 지역 팬덤의 결합으로 이후 프로 야구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명문고를 중심으로 한 대학 입시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던 시기에 고교 야구는 명문고가 펼쳐야 할 또 하나의 경쟁 무대였던 셈"이었다고 본다.

이번 주말에는 프로야구가 시범 경기를 마치고 정식 개막한다. 메이저리그에서 복귀한 한화 이글스 류현진 선수가 LG 트윈스전에서 선발투수로 예고돼 이목을 끈다. 기아 타이거즈도 키움 히어로즈와 홈에서 개막전을 치른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비난과 막말 등 혐오정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잠시나마 야구를 보며 답답함을 씻어내면 어떨까. 바야흐로 야구의 계절이 돌아왔다. / 박성천 문화부장skypark@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